

美國民 8割이 原子力을 支持

世界를 놀라게 한 체르노빌原子力發電所 事故에도 불구하고 美國國民의 8割이 原子力을 지지하고 있음이 최근 실시한 輿論調査의 結果에서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5月 美國 캠프리지·리포트社가 美國의 成人 1,500名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原子力發電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78%가 原電 建設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石炭火力에 대해 現實的인 對應

「당신은 앞으로 10년간 주요한 電源이 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6%가 原子力이라고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태양(13%), 석탄(11%), 수력(10%), 석유(8%), 천연가스(5%)의 順이었다.

「미국의 장래에 있어서 이익을 초래할 에너지源을 두가지 드시오」라는 질문에는 원자력(38%)과 태양(37%) 두가지가 압도적이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은 18%로 수력(24%)에 이어 4위인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석탄화력이 앞으로 미국의 電力需要를 충족시키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8%나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되어 있다.

똑같은 질문을 원자력에 대해 해 보면 더욱 높아져 81%의 사람들이 原子力發電이 美國의

전력수요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電源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南部에 많은 原子力 支持者

原子力發電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81%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 제일 높았던 곳이 남부의 86%, 반대로 낮았던 곳은 서부의 75%이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원은 85%로 높고 민주당원은 78%로 7%가 낮다. 性別에서는 차이가 없어 남녀 모두 81%가 원자력을 지지했다.

「에너지源이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장래 미국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6%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여 이를 부정한 18%를 압도했다.

그리고 「미국국내에서 장래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또한 78%가 필요성을 인

정했다.

순조로운 稼動으로 原子力の 信賴性を 提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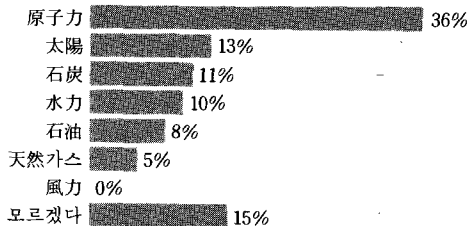
캠브리지·리포트社は 매년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985년 1월 이후 원자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원자력관계자는 각국의 정세의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TMI 및 체르노빌사고가 있었으나 최근 원자력발전의 순조로운 稼動이 국민의 신뢰회복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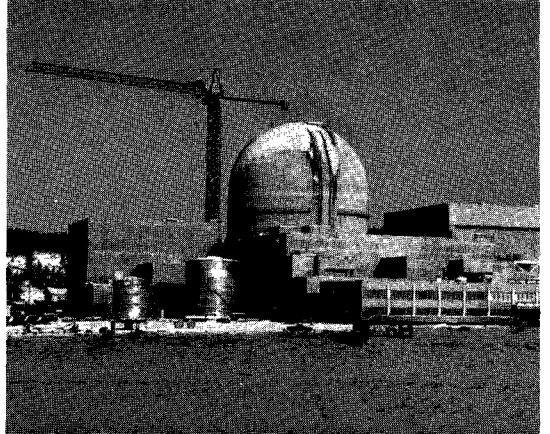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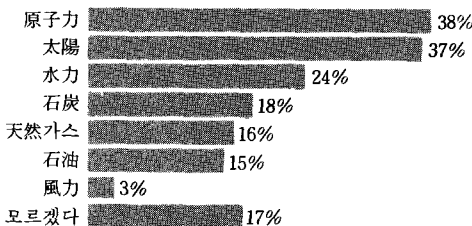
調査의 主要結果

- 원자력은 앞으로 10년간 주요한 電源이다.
- 원자력과 태양에너지 양쪽을 에너지源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래 미국에 있어서 유익하다.

(1) 당신은 앞으로 10년간 主要電源이 되는 것은 어떤 에너지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앞으로 美國에 가장 이익을 초래할 에너지源을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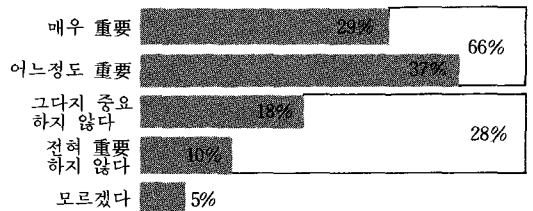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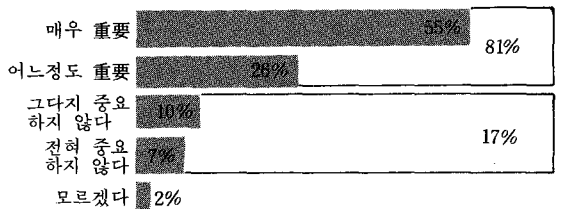
○ 응답자의 81% : 원자력이 미국의 향후 電力需要를 충족하는 데 중요하다(55%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3년 동안에 20% 상승).

○ 응답자의 78% : 미국내에서 장래 원자력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될 필요성이 매우, 혹은 어느 정도(40%는 매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6%가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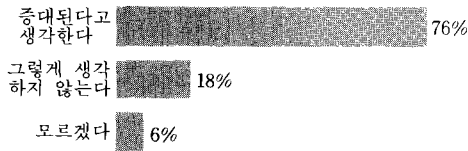
(3) 당신은 石炭火力發電所가 앞으로 美國의 電力需要를 충족시키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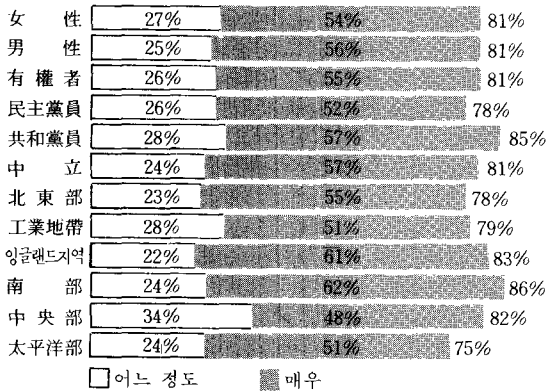
(4) 당신은 原子力發電所가 앞으로 美國의 電力需要를 충족시키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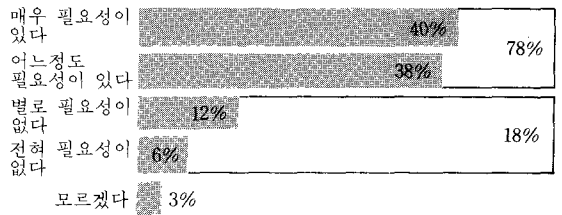
(5) 당신은 에너지源 다양화의 추세에서 앞으로 美國에서 原子力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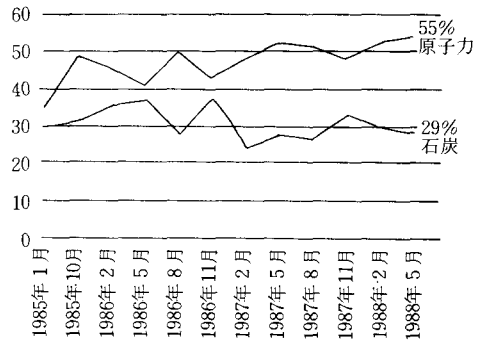
(7) 原子力이 重要하다고 응답한 비율 (%)



(6) 당신은 美國內에서 앞으로 新規 原子力發電所가 건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原子力 및 石炭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



西獨國民 7割이 原子力을 信賴

서독의 아렌스바하 여론조사에 의하면 同國에서는 뉴켄社와 트랜스뉴클리어社에 의한 핵물질의 부정수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높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 졌다.

동 조사에 의하면 「매우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 「약간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로서 양쪽을 합해 68%였다. 한편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2%에 머물렀다.

1년전의 조사에서는 「매우 신뢰하고 있다」가 35%, 「약간 신뢰하고 있다」가 34%, 「신뢰하지 않는다」 17% 였는데, 이번의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부정의혹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 문제를 과제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작년 봄의 조사에서는 77%가 방사성 폐기물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이것이 83%로 증가했다.